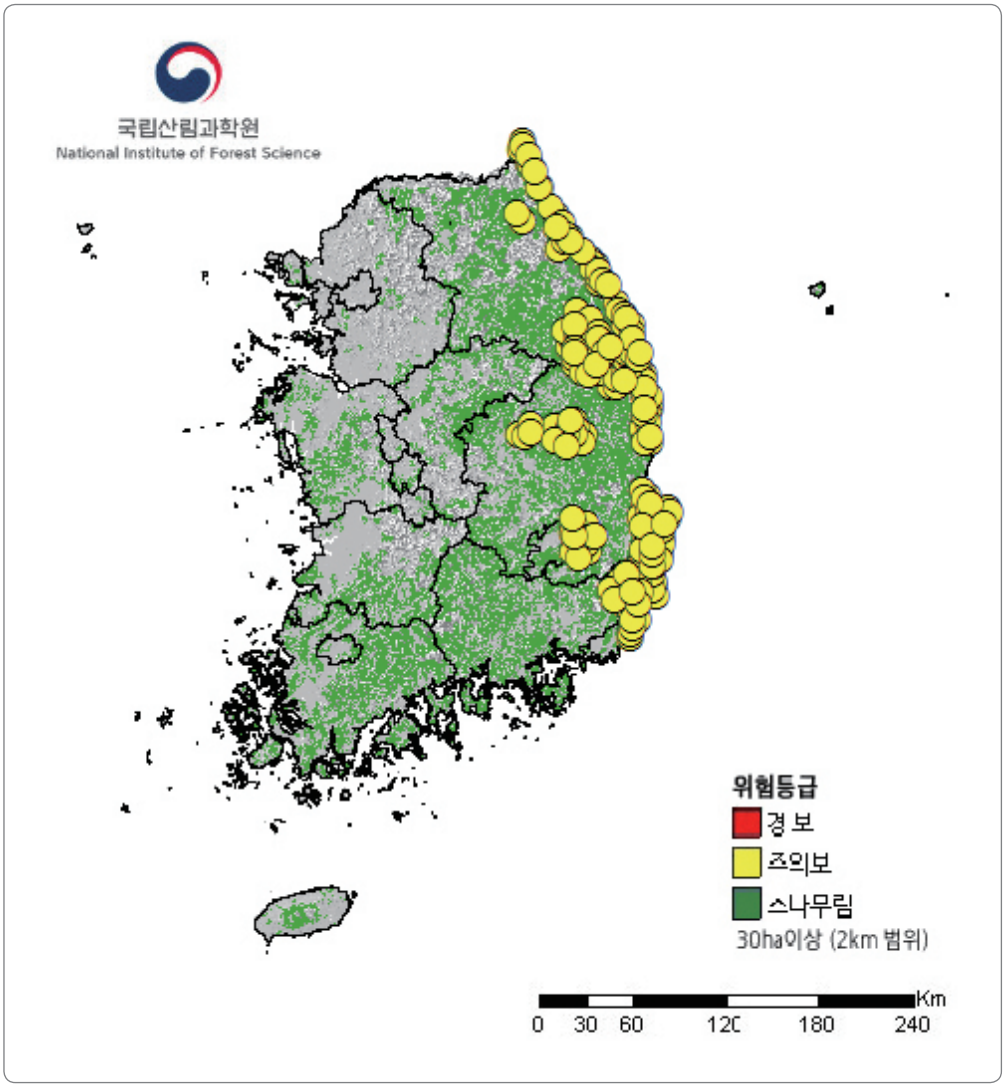
Q7 산림청의 '대형산불위험예보제'란 무엇인가요?

A 대형산불위험예보제는 30ha 이상의 소나무 숲을 대상으로, 숲의 건조상태를 나타내는 실효습도와 풍속조건 등의 기상여건을 분석해 대형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경고해 주는 제도입니다. 2012년 산림청에서 처음 실시하였습니다. 대형산불위험예보제는 주의보와 경보로 구분되는데, 해당 읍·면·동의 산불 위험지수가 51 이상일 경우, '대형산불 주의보'는 실효습도 30% 이상 45% 이하가 2일 이상 - 풍속 7m/s 이상일 때 발령하고, '대형산불 경보'는 실효습도 30% 미만이 2일이상 - 풍속 11m/s 이상일 때 발효됩니다. 보다 효율적인 산불예방 활동으로 국민 안전에 기여할 것이 기대되는 대형산불위험예보제는 국립산림과학원의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http://forestfire.nifos.go.kr)'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형산불위험예보 발령기준 및 단계별 조치사항>

단계별	발령기준	조치사항
대형산불 주의보	- 실효습도 30%이상 45%이하가 2일 이상 계속, 초속 7m 이상 - 해당 읍면동의 산불위험등급 다소 높음 이상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1/6이상 및 소속 공익근무요원의 1/3이상 배치·대기 ·입산통제구역 입산금지 조치, 산불발생 취약지 감시인력 증원, 주 2회 이상 순찰·단속활동 등
대형산불 경보	- 실효습도 30%미만이 2일 이상 계속, 초속 11m 이상 - 해당 읍면동의 산불위험등급 다소 높음 이상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1/4이상 및 소속 공익근무요원의 1/2이상 배치·대기 ·입산통제구역 금지 조치, 유관기관의 산불예방활동 참여, 사격훈련 자제, 주 4회 이상 순찰·단속활동 등

※ 출처 : 산림청 산불통계



대형산불위험예보 발령 사례(2022년 3월 4일 울진·삼척산불)